

빨간 전화 아저씨

조연아

“아, 집에 가기 싫어.”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따라 미나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오늘은 신나는 방학식이 있었던 날인데도 미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꿈쩍없이 동수랑 같이 있어야 해.’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는 미나는 지난밤에 아빠가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일부터는 방학이니 미나가 아픈 할머니 대신해서 동생 잘 돌보고 있어야 한다. 아빠는 우리 딸만 믿어요.”

아빠는 왜 맨날 미나만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미나는 매일 자기에게만 참고, 양보하라고 하는 아빠가 야속했어요.

‘칫, 동수가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집에 가면 꿈쩍없이 동수와 붙어 있을 생각을 하니 미나는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미나는 집에서 혼자 자

기를 기다리고 있을 동생 생각을 하며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쩡해 보이던 하늘에서 한바탕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우산도 없는데…….’

집까지 도착하려면 아직 여기서 한참이나 더 걸어가야만 했어요. 미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미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건 길 건너편에 있는 빨간 공중전화 부스였어요.

‘그래, 일단 저기로 잠시 몸을 피하자!’

미나는 책가방을 머리에 대고 길 건너편으로 빠르게 뛰어갔어요. 빨간 공중전화 부스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지요.

‘아, 다행이야. 이곳에 잠시 있으면 비가 곧 그칠 거야. 어,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지? 그동안에 못 본 것 같은데.’

부스 안에는 부스 색깔과 꼭 닮은 빨강고 큰 아치형 모양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예쁘다……. 생긴 게 꼭 빨간 우체통 같아. 내게도 이런 예쁜 색깔의 핸드폰이 있으면 좋을 텐데…….’

미나는 5학년이지만 아직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빠가 중학생이 되면 사 주신다고는 했지만, 아빠의 약속에 미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동수 장난감 사 주시기도 힘든데 핸드폰은 무슨.’

하긴, 미나는 핸드폰이 생겨도 별로 좋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나에게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전화를 걸어 우산이 없다고 투정 부릴 사람도 없으니깐요.

‘오히려 동수 챙기라고 아빠한테 잔소리 전화만 더 받게 될지도 몰라.’

그나저나 비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미나는 부스 문을 열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다 대고 손바닥을 활짝 펼쳐 보았어요.

‘아이 차가워.’

미나의 애타는 마음도 모른 채 하염없이 내리는 가을비가 제법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지금 이 비를 보고 있을까?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했었는데…….’

미나는 으슬으슬 몸이 떨려 오는 것만 같았어요. 서늘한 공기를 막으려고 부스 문을 닫자 다시 부스 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오래 서 있던 탓인지 미나는 다리도 조금씩 아파 오는 것 같았어요.

‘안되겠다. 가방을 깔고 앉아야겠어.’

3학년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 주신 가방이라 미나는 늘 가방을 보물단지 다루듯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죠. 가방까지 깔고 앉으니 미나는 저도 모르게 솔솔 잠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설친 김동수 때문이야.’

사고뭉치 동수 생각을 하다 보니 미나는 졸린 와중에도 ‘픽’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어디선가 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 여기 빨간 공중전화에서 나오는 벨소리였어요.

‘공중전화가 스스로 벨이 울릴 수도 있어?’

“따르르릉. 따르르릉…….”

벨은 마치 미나에게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어 댔어요.

‘왜 안 끊기지. 예잇! 모르겠다. 내가 받아 보는 거지 뭐.’

미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전화기를 들어 귀에다 가져다 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네가 미나니?”

“네. 제가 미난데요.”

“안녕. 아저씨는 빨간 전화 아저씨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빨간 전화 아저씨라고요?”

“그래, 아저씨는 소중한 사람과의 통화를 연결해 주는 빨간 전화 아저씨란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많이 놀랐지? 아저씨가 이곳에서 미나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를요? 정말 새봄초등학교 5학년 2반 저 김미나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럼. 미나가 마음속으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저편에서

미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

미나는 아저씨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전화가 분명 자기에게 온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자. 거기 전화기 밑에 놓여 있는 동전이 보이지?”

아저씨의 말처럼 전화기 밑에는 반짝이는 금빛 동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동전을 동전 투입구에 넣어 보렴. 단, 시간은 딱 5분만 주어진단다. 그동안 소중한 사람과의 오붓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렴.”

누굴까.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건 걸까……. 미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금빛 동전을 동전 투입구에 밀어 넣었어요.

‘땡그랑’ 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뚜뚜’ 몇 번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전화기 너머 저 어디선가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미나니?”

“……어. 어…엄마?”

맞아요. 그건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꿈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너무나 보고 싶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의 목소리 말이예요.

“우리 미나.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엄마는 어때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아. 이곳은 아주 편안하고 좋

아. 다만 우리 딸 보고 싶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엄마는 늘 몰래 어디선가 우리 딸이랑 아들 지켜보고 있으니 이 정도는 잘 참을 수 있어.”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미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건강했을 때의 낭랑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응?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엄마가 안 보여요? 나도 엄마 보고 싶은데.”

“음…… 그건 엄마가 우리 딸을 더 사랑하니깐 그렇지. 원래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야.”

“에잇. 엄만 또 거짓말. 예전에도 동수를 잘 보살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어? 엄만 우리 딸한테 거짓말한 적 없는데? 봐 봐,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

“나는 동수한테 잘해 주면 엄마가 병에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미나의 눈에선 어느새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나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듯 엄마의 목소리는 한결 더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딸. 우리 딸이 얼마나 지금 큰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알아? 우리 딸이 엄마 대신 동수도 잘 보살펴 주고, 또 아빠까지 챙겨 주고. 우리 집의 엄마 역할을 톡톡히 잘해 주고 있잖아. 엄마

말이 맞지요?”

미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엄마의 말에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나 엄마 대신해서 동수 밥도 챙겨 주고, 얼굴도 씻겨 주고, 옷도 챙겨 주고, 밤에 잠까지 재워 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거니깐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딸이 엄마랑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야. 여긴 아무나 와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 여긴 빨간 전화 아저씨가 허락한 사람만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단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미나의 눈에선 어느새 흐르던 눈물이 ‘뚝’ 하고 멈추었어요.

“정말요?”

“그럼. 미나가 왜 지금 엄마랑 5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지 아니? 그건 미나가 엄마가 없는 지난 500일 동안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켜 주었기 때문이야. 그곳에서의 100일은 이곳의 1분과도 같거든. 엄마가 아무리 미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미나가 엄마와 약속을 어기고 잘 못 지내고 있었다면 엄만 이렇게 미나랑 통화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빨간 전화 아저씨가 우리 딸이 약속도 잘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서 엄마와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생각해 보니 엄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미나는 엄마와 헤어지기 전 마지막에 엄마와 약속을 했었어요.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지내기, 동수에게 양보하며 잘 지내기, 아빠에게 투정 부리지 않기 등등’ 아마 약속으로 따지자면 10개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리

고 지금까지도 미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들어도 꼭 참고 노력했어요. 그래야 어디서든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가 슬프지 않을 테니까요.

“자, 우리 딸. 이제 5분의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벌써 5분이 흘렀다고요? 엄마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미나는 아쉽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아쉬워할 엄마를 위해 굳게 마음을 먹기로 했지요.

“나도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와의 약속 앞으로도 꼭 잘 지켜서 다음에는 엄마 목소리 더 오래오래 들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빨간 전화 아저씨께 우리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유심히 잘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려 놓을 거야. 그러니 우리 딸 그때까지 지금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기!”

마지막 말을 끝으로 엄마의 목소리는 전화기 저 너머 어딘가로 아득해져 갔어요. 미나는 멀어져 가는 엄마의 숨결을 느끼며 금방이라도 다시 눈물이 솟구쳐 나올 것만 같았어요. 미나는 혹여나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 싶어 차마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아. 여보세요. 미나 거기 아직 있는 거니?”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까 들렸던 빨간 전화 아저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저씨?”

“그래. 빨간 전화 아저씨란다. 엄마와의 통화는 잘 마쳤니?”

“네. 하지만 너무 아쉬워요. 벌써 이렇게 다시 엄마가 보고 싶어지

는걸요.”

“그랬구나. 우리 미나가 속상해서 어찌지……. 그런데 미나야. 아저씨가 문제 하나 낼까? 미나는 혹시 아저씨가 왜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그건 미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란다. 미나가 지금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각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거든.”

아저씨의 말에 미나는 친구 예지가 떠올랐어요. 미나의 단짝 예지도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미나 앞에서 눈물을 보였었거든요.

“그럼 혹시 아저씨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뜨겁고 빨간 심장을 닮아서인 거예요?”

“옳지. 역시 우리 미나는 똑똑한 아이로구나. 저기 옆에 있는 우체통 아저씨 보이지? 우체통 아저씨나 이 전화 아저씨나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붉고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주는 존재들이란다. 그러니 우리 미나도 엄마가 그리울 때엔 언제든지 아저씨를 찾아와 쉬어 가도 된단다. 혹시 또 누가 알겠니? 오늘처럼 운이 좋은 날엔 엄마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지도 말이다. 하하하.”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귀를 간질이면서 미나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감싸고 돌아 미나는 자꾸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나는 부스 안을 가득 채운 뜨거운

열기에 저도 모르게 ‘번쩍’ 하고 두 눈이 뜨였어요.

‘어, 언제 이렇게 비가 그쳤지?’

부스 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과 함께 햇살이 한가득 내리쬐고 있었지요.

‘아. 개운해.’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까 부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잔뜩 무겁고 찌부들하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몸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니겠어요? 미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몽실몽실 피어오른 뭉게구름 감상에 여념이 없었지요.

‘아, 김동수!’

그때였어요. 갑자기 미나는 동수가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 동수 간식 챙겨 줄 시간인데! 옥, 너무 늦어 버렸어!”

미나는 그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부리나케 뛰어갔어요. 빨간 전화 아저씨께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말이지요.

다음날 미나는 아빠와 동수의 손을 잡고 물건을 사러 동네 마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나는 오늘따라 자신의 손을 잡은 아빠의 손이 유난히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딸. 어제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비는 오는데 동수에게 전화하니 누나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러고. 아빠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죄송해요. 어제는 잠시 비를 피하느라……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안되겠다. 우리 딸 이번 기회에 핸드폰 하나 장만하도록 하자.”

“아니예요. 저 핸드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겐 저만의 특별한 전화기가 있거든요. 차라리 지난번에 동수와 약속하신 동수 장난감부터 먼저 사 주세요.”

미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수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누나가 웬일? 이렇게 먼저 나한테 양보를 다 하고. 어제 비를 맞아서 어디가 좀 아픈 거 아니야?”

미나가 어깨를 으스대며 이야기했어요.

“동수야. 누나는 언제나 약속을 중요시하는 믿음직한 사람이라. 이번엔 네가 먼저 선물을 받을 차례잖아. 그러니 누나가 당연히 양보해야지. 앞으로는 이 듬직하고 씩씩한 누나만 믿으렴.”

“에잇. 누나는 또 큰소리.”

동수의 핀잔 섞인 대답과 함께 동수와 미나 사이에 한바탕 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를 지켜보는 아빠의 얼굴 역시 미소로 가득 차올랐지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세 식구를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빨간 전화 아저씨가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나 역시 그런 빨간 전화 아저씨를 향해 마음속으로 살며시 인사를 건넸지요.

‘아저씨, 저 잘했죠? 거기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동생과 나란히 발맞춰 걸어가는 미나의 뒷모습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